

Original Article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에 대한 비교 연구 - 효능(형성) · 처방 용어를 중심으로 -

김상현¹, 오용택², 김안나¹, 김상균¹, 서진순¹, 장현철¹

¹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²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A Comparative Study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Based on Terms of the Efficacy and the Method of Treatment-

Sanghyun Kim¹, Yongtaek Oh², An-na Kim¹, Sangkyun Kim¹, Jinsun Seo¹, Hyunchul Jang¹

¹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Through this study, it would be expect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Method: Ontology DB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s been used comparing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Terms of the efficacy and the method of treatment were divided to predicate and object. And two groups were compared through contrasting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significant words.

Results: Predicates utilized more in medicinal treatment are the character ryeom[斂], go[固], pa[破], nae[內], and tu[透]. Predicates utilized more in acupuncture treatment are the character so[疏], jo[調], and seo[舒]. Object utilized more in acupuncture treatment is the character gi[氣]. Object utilized more in medicinal treatment is the character jeong[精].

Conclusions: In terms about the efficacy of acupuncture, there are many expressions associated with Qi[氣]. But expressions associated with Jing[精] are rare compare to medicinal treatment. There is a difference in language that represents the efficacy between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In addition, there are some terms about efficacy that are not shar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differences in disease treatment and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two theories.

Key Words : Medicinal treatment, Acupuncture treatment, Efficacy, Method of treatment, Ontolo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서론

침, 뜸, 약은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침구와 한약으로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그룹은 공유하고 있는 생리병리 이론 하에 처방으로서 존재하기도 하지

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각자 독자적인 배경을 지니기도 한다.

먼저 한약, 즉 본초와 방제의 경우에는, 초기에 단순한 약물의 사용에서 점차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론과 방법이 갖추어진 양상으로 변모했고, 의학문화가 진일보하면서 그 이론과 처방이 풍

• Received : 1 June 2016 • Revised : 29 September 2016 • Accepted : 29 September 2016
• Correspondence to : 장현철(Hyunchul Jang)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Tel : +82-42-868-9364, Fax : +82-42-869-2756, E-mail : hcjang@kiom.re.kr

부해졌다.¹⁾ 따라서 한약 치료는 陰陽五行, 臟象理論 등의 다양한 생리병리이론에 폭넓게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침구의 경우는, 그 이론적 배경이 한약 치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로 수혈이론의 형성에 앞서 경맥이론이 체계화 되었고 刺穴요법보다 刺脈요법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고 알려지는데,²⁾ 그러한 점에서 현재 경혈을 이용한 침구치료가 경맥 체계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경맥 체계는 초기에 사지, 음양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그 순행 부위가 다듬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장부와 결합됨으로써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수혈으로써 치료를 하는 이론은 맥진병후, 질병 반응점으로서의 인식과 같은 경험 뿐 아니라 경락학설, 장상학설로부터 유추되어 형성되었다.⁴⁾

필자는 이러한 이론 형성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한약을 이용하는 치료와 침구를 경혈에 적용하는 치료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바꿔 말하면 침구치료와 한약치료가 주치 증상 면에서나 치료효능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실제로 이 가설과 유사한 방향으로 연구한 예가 있는데, **李 등⁵⁾**은 경혈과 한약의 본질적 차이를 매개체, 작용의 기본 메커니즘, 개개의 특성 등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凌⁶⁾**은 한약의 효능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경혈의 혈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경혈의 치료 작용이 한약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유사한 궁급증으로부터 시작한 연구들이지만 소수의 예시를 그 논지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물론 이러한 형식의 연구는 귀납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로 몇 가지 예시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경혈과 본초, 방제의 치법이나 효능 용어의 전수를 조사하여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한의 온톨로지 DB⁷⁾를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에 한의 온톨로지 DB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용어를 정제, 분해하고 각 지식간의 연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⁸⁾⁹⁾¹⁰⁾¹¹⁾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계율을 떠나 구축되어있는 DB를 활용하여 두 집단 간의 단순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찾아보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데이터는 현재 구축된 한의 온톨로지 DB 중 본초·처방의 효능, 치법 데이터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데이터이다. 각 용어는 교재별로 다음 부분에서 추출하였다.

- 『본초학』 : 效能 主治란의 효능 용어(‘治’ 이전 부분)
- 『임상본초학』 : 效能 主治란의 효능 용어(‘~등의 효능이 있어’ 이전 부분)
- 『신씨본초학』 : 主治란의 효능 용어(‘治’ 이전 부분)
- 『방제학』 : 주방 功效란의 효능 용어, 처방 설명란의 효능 용어
-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 기본방의 主治란의 효능 용어, 기본방의 效能란의 효능 용어(~의 기본방에서 ~부분), 連繫方의 원문 중 효능 용어, 連繫方 示意圖 主治란의 효능 용어, 임상활용 처방의 원문부분에서 효능 용어
- 『한방병리학』 : 『辨證論』 ‘臟腑辨證’ 중 각 소제목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 『肝系內科學』 : 제1편 총론 ‘제2장 肝病의 證治 ~ 제12장 筋病論’ 중 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 『心系內科學』 : 심혈관계편 ‘제1장 4절 심질환의 증치, 제2장 증후, 신경계편 제2장 증후’ 중 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 『脾系內科學』 : ‘총론 5장 비위병의 증후 및 변증논치, 각론 상편 제1절 內傷 ~ 제26절 脫肛’ 중 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 『東醫肺系內科學』 : ‘Ⅲ. 證候 제4장 肺傷證 ~ 제25장 痰癰證’ 중 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東醫腎系內科學』: ‘第2篇 尿路學 尿路異常 ~ 第5篇 藏精生化學 自律神經系疾患’ 중 치법 항목의 치법 용어

『대학경락경혈학각론』: 2009년판 上,下卷의 혈성, 치법 용어 및 2012년판 上,下卷의 혈성 용어

『침구학』: 上卷(經絡腧穴)의 혈성 용어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본초·처방과 경혈·침구의 데이터로 구분하여 각각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였다. 두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공통된 데이터와 차이나는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다만 단순비교로는 의미있는 고찰을 도출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즉 효능, 혈성, 치법 등의 용어가 서술어+명사(목적어)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각 데이터를 분해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두 그룹의 데이터를 각각 술어와 명사로 분해한 뒤, 두 그

룹을 술어와 명사 데이터끼리 비교하여 공통된 데이터와 차이나는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두 그룹간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비교 결과

한의 온톨로지 DB 중 본초·처방의 효능 데이터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데이터의 건수는 각각 896, 818건씩이며 그 중 공통된 데이터는 296건이다(Figure 1). 또한 효능, 치법, 혈성 데이터가 대부분 ‘술어+목적어(명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각각 분해하였는데, 술어의 경우는 본초·처방과 경혈·침구가 각각 238, 163건씩이고 공통 술어가 111건이고, 목적어의 경우는 각각 347, 339건씩이고 공통 목적어(명사)가 141건이다. 각 데이터를 분류하여 유의미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强骨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强筋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降气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降心火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降压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降逆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降热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强腰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9	强阴道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	强壮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强壮骨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2	强壮筋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3	降湿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14	降血压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5	降火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强健脾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2	强健膝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3	强健腰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4	强健胃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强健脊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强健腿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强骨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	强筋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9	降气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10	降痰气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强膝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12	强臂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13	降逆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14	降逆气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15	强腰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89	和血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90	滑痰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91	豁痰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92	活络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93	滑肠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94	活血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95	回阳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96	兴阳痿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11	和血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12	豁痰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13	活络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14	滑络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815	活血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16	回厥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817	回厥逆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818	回阳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Fig. 1. Data base of the efficacy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1. 술어 비교

두 그룹간의 술어를 비교하여 특징적인 내용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斂’, ‘固’의 쓰임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서만 쓰이는 술어 중 하나로 ‘斂’을 꼽을 수 있다. ‘斂’이 포함된 효능 데이터는 총 7건이다(Figure 2). ‘수렴시킨다’는 의미로서 비슷한 술어로는 ‘固’가 있는데, 경혈·침구의 혈성, 처방 용어에는 ‘固’가 포함된 용어가 7건 있다. 하지만 총 13건인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와 비교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斂陽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	斂陰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3	斂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4	斂瘡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斂肺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斂汗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收斂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2.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斂) of medicinal treatment

봤을 때, 본초·처방의 효능을 표현하는 데에 더 다양한 용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따라서 ‘斂’과 ‘固’와 같이 ‘수렴시킨다’, ‘굳건히 하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固精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固脫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固表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固經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固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固澁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固澁腎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固攝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9	固攝腎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	固腎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固牙齒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2	固冲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3	固脬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3.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固)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固精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固脫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固表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固本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固衛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固表分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勞厥固脫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疏肝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疏經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疏邪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疏散風熱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疏散風寒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疏風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疏絡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疏利膀胱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9	疏散肝熱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	疏泄肝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疏泄膽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2	疏鬱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3	疏藤理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4	疏滯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5	疏通氣機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6	疏表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7	疏解表邪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8	滋陰疏肝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疏肝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疏經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疏邪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疏散風熱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疏散風寒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疏風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督脈疏導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直隸肺熱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4	疏太陽經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5	疏通肝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6	疏通經絡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7	疏通脾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8	疏表邪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9	疏風邪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0	疏風寒邪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1	疏下焦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2	疏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4.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疏(疎))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調肝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調經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調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調胃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調任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調中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調血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	通調大腸經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9	調整經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0	調和衛任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1	調血脈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2	調和肝脈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3	調和營衛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4	調和營衛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5	調和諸藥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6	通調經脈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7	通調胃經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調肝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調經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調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調胃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調任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調中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調血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	疏調經絡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9	調和脾胃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0	調和衛任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1	調和玄府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2	通調經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3	通調經絡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4	通調三焦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5	通調三焦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6	通調胃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7	通調二便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5.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調)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다'라는 의미의 용례를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서 보다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2) '疏', '調'의 쓰임

'疏'와 '調'는 각각 '소통시키다', '고르게 하다' 정도의 의미로서 서로 붙여 쓰기도 하는 술어이다.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疏'는 각각 18건 대 62건 이고(Figure 4), '調'는 27건 대 77건이다(Figure 5).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 해당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에서 훨씬 다양한 용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舒'의 쓰임

'舒'는 '펴다', '느슨하게 하다', '편안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이다.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2건 대 8건이었다(Figure 6).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서 쓰인 '舒筋', '舒肝'은 모두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에도 포함되어 있고, 두 건 이외에 '舒經', '舒氣' 등의 다양한 용례가 혈성, 치법 용어에 보인다.

4) '破'의 쓰임

'破'는 '깨뜨리다'는 의미로서 단단하게 뭉친 것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舒肝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舒筋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舒肝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舒筋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舒經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4	舒經脈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舒筋脈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舒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舒宗筋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舒暢氣機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6.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舒)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破堅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	破結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3	破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4	破癆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破癰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破陰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破積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破積聚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9	破癥結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	破癥癰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破血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Fig. 7.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破) of medicinal treatment

이나 어혈 등을 깨뜨려 흩어주는 효능에 주로 쓰인

다.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는 7건의 용례가 보이지만 경혈·침구의 혈성 용어에는 보이지 않는다 (Figure 7).

5) ‘內’의 쓰임

‘內’는 술어라기보다는 접두어로서 술어 앞에 붙여 쓰이는데, 그 예로 ‘內瀉’, ‘內散’, ‘內清’의 술어가 있다(Figure 8). 이 술어들은 각각 ‘熱結’, ‘水飲’, ‘鬱熱’과 같이 증상이나 병리적인 상황을 목적어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용례는 경혈·침구의 혈성 용어에는 보이지 않고,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만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內瀉熱結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2	內散水飲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3	內清鬱熱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8.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內) of medicinal treatment

6) ‘透’의 쓰임

‘透’는 ‘통하게 하다’, ‘내보내다’ 등의 의미로서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7건 대 1건이었다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降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納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利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理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補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補脾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補益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8	補益腎氣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8	調養益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49	調整經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0	振奮陽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1	清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2	破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3	下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4	行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5	解鬱結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6	和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10.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氣)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Figure 9). 그 중 혈성 용어의 1건은 개정 전의 『대학경락경혈학 각론』 상에서 膈俞穴의 혈성으로 쓰인 ‘透熱’이 유일하다. 반면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 중 ‘透達膜原’은 吳又可가 達原飲의 효능으로 제시한 용어이고, ‘透熱’, ‘透營’과 같은 용어는 清營湯이나 靑蒿鱉甲湯과 같은 처방의 효능으로서 衛氣營血辨證의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즉 溫病學派의 성립과 더불어 사용되기 시작한 효능 용어가 한약 치료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透熱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清透燥熱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3	透達膜原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4	透邪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透營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透疹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透表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透熱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Fig. 9.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透)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2. 목적어 비교

1) ‘氣’와 관련된 표현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降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納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利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理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5	補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6	補脾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7	補益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8	補益腎氣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92	通降胃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3	通經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4	通經絡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5	通氣滯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6	通腑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7	通泄腸胃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8	通調三焦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99	通調胃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0	和胃氣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固精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補益腎精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益精	한약 치료	침구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斂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補益精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澁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生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8	養精神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9	益精氣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0	益精髓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1	滋養陰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2	填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3	止泄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14	平補精	한약 치료	한약 치료에만 있는 용어

번호	데이터	데이터 출처	비교 결과
1	固精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2	補益腎精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3	益精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도 있는 용어
4	補益精神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5	實精宮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6	溫精宮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7	調精宮	침구 치료	침구 치료에만 있는 용어

Fig. 11. Efficacy data(including a term 精) of medicinal and acupuncture treatment

‘氣’와 관련된 표현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 비교해 보았을 때,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간의 검색 건수가 각각 56건 대 100건이었다(Figure 10). 물론 단순 건수로 비교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침구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때 ‘氣’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舒’와 같은 술어가 ‘氣’와 붙어 쓰이는 경우를 혈성, 치법 용어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精’과 관련된 표현

‘精’과 관련된 표현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대하여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와 경혈·침구의 혈성, 치법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14건 대 7건이 검색되었다(Figure 11). ‘固精’, ‘益精’이라는 용어는 약물 치료나 침구 치료에서 쓰이고 있지만, ‘斂精’, ‘澁精’, ‘生精’, ‘填精’ 등과 같은 용어는 약물 치료의 효능 용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만큼 ‘精’과 관련된 용어가 본초·처방의 효능 용어에 더 다양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고 찰

효능이나 혈성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 비교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이유는 한약 치료

와 침구 치료 간에 이론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던 차이가 실제 치료와 관련된 정보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대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를 ‘理法方藥’의 틀에서 본다면 진단 후의 용약이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의 범주가 그 이론의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침구 치료의 경우 제한된 치료수단 및 수혈, 경락 위주의 이론체계로 인해 그 치료의 범주가 다소 국한될 것이라 추측하였다. 따라서 치료 수단에 따라 이론적 배경이 다르므로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나 치료할 수 있는 질환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만 하다. 이러한 가설을 염두에 두고 검색 키워드를 골라 비교해 보니 위의 결과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교 과정에는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다양한 표현이 검색될수록 그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먼저 침구치료에 있어서는 효능 용어 중 ‘氣’와 관련된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氣’와 같은 무형의 목적어를 다루는 맥락으로서 ‘疏’, ‘調’, ‘舒’와 같은 술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약물 치료가 ‘氣’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침구 치료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경락 학설이 ‘氣’의 개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이 효능 용어의 다

양성에 깔려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대응하는 예로서 ‘精’과 관련된 표현이나 ‘수렴시키다’, ‘응축시키다’ 등의 술어가 약물치료에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보인다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을 『靈樞』에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氣俱不足也, 不可刺之, 刺之則重不足, 重不足則陰陽俱竭, 血氣皆盡, 五藏空虛, 筋骨髓枯, 老者絕滅, 壯者不復矣.¹²⁾

형기가 부족하고 병기가 부족한 것은 음양의 기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 자침을 해서는 안되는데, 침을 놓으면 거듭 부족하게 하고 거듭 부족해지면 음양의 기가 모두 소모되고 혈기가 모두 소진되어 오장의 기운이 텅 비고 힘줄, 골수가 마르게 되니, 늙은 사람은 죽고 건장한 사람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許浚 또한 위의 내용을 인용한 『醫學入門』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鍼法有瀉無補(침법에 사법은 있지만 보법은 없다)’라는 기사를 『東醫寶鑑』에 수록하였다.¹³⁾ 이러한 내용은 결국 침치료가 주로 氣를 다루지만 精氣를 수렴하거나 보하는 방향으로 쓰기 어렵다는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효능 용어의 빈도수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두 그룹간의 효능을 나타내는 술어 중 질환을 대상으로 한 용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각각의 치료수단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환군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사실 이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효능과 혈성 용어를 비교하는 것보다 주치 증상을 비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능, 혈성 용어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두 치료수단이 각각 질환에 접근하는 방식, 기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효능, 혈성 용어에서 이 가설을 뒷받침해줄만한 특징적인 술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破’라는 술어의 경우 積聚, 瘀血과 같이 실질적으로 덩어리진 형체를 깨뜨리는 의미로 쓰이는데, 혈성 용어에 보이지 않

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물론 積聚, 瘀血을 침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약물 치료에서 ‘破’하는 개념과 다르게 치료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內’라는 접두어도 ‘瀉’, ‘散’, ‘清’에 붙어 쓰였는데, 세 가지 술어 모두 혈성 용어에 보이지만 ‘內’가 붙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또한 약물 치료의 특성상 ‘안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침구 치료의 혈성 용어와 차별되는 예이다. 두 치료 수단의 효능, 혈성 용어에서 쓰이는 술어가 차이남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지만, 각 치료수단이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한 질환군에 대해서는 각 치료수단의 주치 증상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 각각에 있어 학문적 발전의 독자성이 반영된 키워드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후대에 성립된 溫病學派의 이론체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透達膜原, 透熱, 透營과 같은 효능 용어가 혈성 용어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침구치료를 透達膜原, 透熱, 透營하는 효능을 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생리병리 이론 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각자의 노선 상에서 상대적으로 후대에 나온 학설이 다른 노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자 가설이다. 그리고 이는李나 凌이 경혈과 한약의 본질적 차이, 四氣五味, 浮沈升降 등을 근거로 삼아 한약의 효능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경혈의 혈성을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이다.¹⁴⁾¹⁵⁾ 요컨대 본초, 처방 중심의 이론체계와 경혈침구 중심의 이론체계가 독립적으로 발전, 계승됨으로써 이론상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만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明清代 이후에 간행된 침구서적과 온병학 서적의 효능-혈성 용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효능(혈성), 치법 용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생기는 연구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일단 본초의 ‘효능’ 용어는 현대 본초학에서는 핵심적인 용어이지만, 고대의 본초서적에는 ‘효능’이라는 단독 개념이 없었고 주치, 효능이 혼용되어 있었는데 명, 청대부터 효능 용어를 분리시키거나 본초의 주치증상으로부터 도출해낸 것이다.¹⁶⁾ 물론 학자들의 검증을 거쳤겠지만 도출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처방의 경우에도 송대 이전까지는 경험방을 축적하는 단계였다가 금대 성무기의 『상한명리론』부터 처방의 효능 용어가 등장한다. 명, 청대를 거치며 처방 전문서적이 끊임 없이 등장하였지만, 신중국 이전까지 효능 용어에 대한 일정한 양식이 형성되지 않아서 동일 처방에 대해서도 각 방식마다 그 효능을 기술하는 데에 쓰는 용어가 다르고 처방이 가지는 전체 효능에 대한 논술도 부족하다.¹⁷⁾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들을 취합해 형성된 ‘효능’ 개념을 사용하여 처방 간에 비교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형성’이라는 개념도 현대 한의학에서 상응하는 장부나 기전의 병증을 치료하는 특성으로서 형성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고대 문헌에서는 형성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었고 대신 적응증에 대한 설명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¹⁸⁾ 黃은 수혈 주치증의 형성 과정에도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¹⁹⁾ 주치증을 후대에 재가공한 ‘형성’이라는 개념이 경혈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주치증과 같은 1차 data를 해석한 meta-data인 효능(형성), 치법 데이터가 태생적으로 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연구 방법으로는 두 집단의 치료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질환군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각 치료수단으로 질환에 접근하는 인식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또한 애초에 경혈과 본초, 방제의 효능(형성), 치법 용어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두 그룹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하지만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용어의 빅데이터 분석이 어려웠던터라, 여러 교과서에서 수집한 효능

용어이기 때문에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DB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연구자의 편향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찰한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역량 하에서 도출된 것이며, 향후에 발전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더 나은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결론

이상으로 한의 온톨로지 DB 중 본초·처방의 효능 데이터와 경혈·침구의 형성, 치법 데이터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침구치료의 형성 용어에는 ‘氣’를 ‘調節’하거나 ‘疏通’시키는 등의 표현이 한약치료의 효능 용어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게 표현된다. 반면 ‘精’을 ‘收斂’하고 ‘固攝’하는 등의 표현은 한약치료의 효능 용어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한약치료와 침구치료의 효능(형성), 치법 용어에서 질환을 다루는 술어 중에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두 치료수단 간에 질환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대적으로 후대 학설에서 쓰이는 용어 중 한약치료와 침구치료 간에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한약치료와 침구치료는 각기 독자적인 이론체계 하에서 발전해왔으며, 현재 한의학 교육을 위한 체계 안에는 각 이론체계의 최신 지견이 아직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수를 비교함에도 자료의 형태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결국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능(형성), 치법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두 치료수단의 주치 증상도 비교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PHR 플랫폼 구축(K1651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Professors of formula study of Korean Medicine School. Formula Study. Seoul:Yeong-lim Press. 2008:32.
2. Huang LX. Outline of Chinese Acupuncture Academic History(translated by Park HK, Yoon JH, Kim KW). Seoul:Beobin Publishers. 2005:853.
3. Huang LX. Outline of Chinese Acupuncture Academic History(translated by Park HK, Yoon JH, Kim KW). Seoul:Beobin Publishers. 2005: 519.
4. Huang LX. Outline of Chinese Acupuncture Academic History(translated by Park HK, Yoon JH, Kim KW). Seoul:Beobin Publishers. 2005: 884-900.
5. Li YF, Zhuang LX. On the differences of the natures of acupoints and chinese herbal medicines. World Journal of Acupuncture -Moxibustion. 2007;7(1):41.
6. Ling ZY. Study on the theory of acupoint functions.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2005;25(2):131-2.
7. Jang HC, Kim JH, Kim SK, Kim C, Bae SH, Kim AN, et al. Ontology for medicinal material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ioinformatics. 2010;26(18):2359-60.
8. Kim SK, Jang HC, Kim JH, Yea SJ, Kim C, Eum DM, et al. A Study on Reasoning based on Herb and Formula Ontologies.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9;22(3):97-105.
9. Kim AN, Oh YT, Kim SK, Seo JS, Jang HC. Disassembling Indication Terms of Medicinal Treatment Using a Cooperation Tool.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3;27(4): 362-6.
10. Oh YT, Lee BW, Kim EH. A Study of the virtue terms in herbal medicine.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0;23(5):35-50.
11. Oh YT, Jeon BU, Jang HC, Kim CS, Kim JH, Kim SK, et al. Study of connections between efficacy terms and remedy terms by conversion the raw terms into the representative terms.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1;24(5):99-105.
1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yeongchu. Seoul: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51.
13. Heo Jun. New parallel translation texts of Donguibogam(annotated by Jin JP). Seoul: Beobin Publishers. 2012:2061.
14. Li YF, Zhuang LX. On the differences of the natures of acupoints and chinese herbal medicines. World J Acu-Moxi. 2007;7(1):41.
15. Ling ZY. Study on the theory of acupoint functions.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2005;25(2):131-2.
16. Zeng XF. Change of status of the efficacy in herbal medicine by time period. Hubei J TCM. 2008;30(5):28.
17. Yong XJ, Jiang YG, Chen Y, Han PY. Discus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expression for prescription efficiency and it's modern research meaning. Lishizhen Medicine and Materia Medica Research. 2005;16(4):293-4.
18. Li YF, Zhuang LX. On the differences of the natures of acupoints and chinese herbal medicines. World J Acu-Moxi. 2007;7(1):41.
19. Huang LX. Outline of Chinese Acupuncture Academic History(translated by Park HK, Yoon JH, Kim KW). Seoul:Beobin Publishers. 2005: 931-8.